

# “아픈 기억 생생한데...진상·책임 규명 제대로 안돼 통탄”

이태원 참사 1년...광주 희생자 고 김재강씨 아버지 김영백씨의 하소연

“아들이 죽은지 1년이 지났지만 참사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주 출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재강 씨의 아버지 김영백(63)씨의 애끓는 하소연이다.

26일 오전 아들이 다녔던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카페에서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처음에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들 이야기가 시작되자 눈물을 쏟아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서울행을 찬성한 자신의 결정 때문에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아들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성공해 서울과 통영 중에 어디로 가야할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서울로 간다는 아들의 말에 동조했다”며 “그 때 그 선택을 빼어 사무치도록 후회한다. 품에서 떠나보내고 불과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을 볼 수 없게 될 줄 몰랐다”고 눈물로 매일을 보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 아들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억울”

28일 광주서 유가족 릴레이 걷기

내고 있다.

김씨는 이어 “그 날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찮아 질 줄 알았는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 집 주변을 걸을 때마다 평생 아들과 함께한 광경이 펼쳐져 이사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 더 마음이 아프다”며 “아내는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 생각나 지금까지도 밥상을 차릴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광주·전남 지부장을 맡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재강씨 아버지 김영백씨가 아들을 회상하고 있다.

있는 김씨는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참사 당시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유가족협회를 통해 정부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추모공간 조성’,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참사 당시 정부의 사전대비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이태원에 헬러윈 축제로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지시를 내려야 할 공무원도 없었다”며 “수 많은 아들, 딸들이 희생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것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 억울하고 통탄스럽다”고 분개했다.

또 정부의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중대본 설치를 바로하지 않은 점, 희생자들을 추운 날씨에 사고현장에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미비한 조치로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에 의해 희생자들이 ‘놀러가

서 죽은 자식’이 됐다”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유가족도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정부가 추모공간을 만들어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추모공간 조성이 불가능한 장소들만 제시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마지막 질문에 김씨는 “이승과 저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듣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떨치지 못한 꿈을 그곳에서라도 펼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걷기’에 나설 예정이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올해 광주·전남 ‘헬러윈 축제’ 사라졌다

‘이태원 참사’ 영향 개최 안해

올해 광주·전남에서 ‘헬러윈’ 축제가 모두 사라졌다.

헬러윈(매년 10월 31일, 영미권의 전통적인 행사)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광주·전남 어디에서도 헬러윈 축제에 대한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0월 29일 헬러윈 축제가 열린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구 대인예술시장에서 헬러윈 분위기로 가득 찬 ‘남도달밤야시장, 할로윈 특집’ 야시장을 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는 헬러윈 분위기를 띤 야시장은 계획되지 않았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헬러윈 테마로 진행됐던 축제로 곡성군 ‘기차마을 어린이 대축제’, 화순군 ‘국화향연’ 등이 있었지만 올해는 헬러윈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광주·전남 소재의 대학교에서도 올해 헬러윈 축

제는 진행하지 않는다.

조선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조선대 장미의거리에서 헬러윈 축제를 열었지만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지난해 11월 5일까지 국가예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축제를 조기종료했고, 올해도 헬러윈 축제는 열리지 않는다. 순천대도 지난해 10월 29일 학교 일대에서 ‘2022 할로윈 대소동’ 축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헬러윈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10월이 되면 거리에 헬러윈 캐릭터가 그려진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고, 헬러윈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 홍보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어디에서도 헬러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특히 참사를 야기한 헬러윈 축제 나아가 헬러윈 문화를 대중들이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진 대비 이렇게 해요”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하늘어린이집 원아들이 26일 지진 방재 모자를 쓰고 밖으로 대피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양, 중앙공원 1지구 손배소 승소...“다수 지분 확보”

비한양과 “사업 추진과는 무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한양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빈산업을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

도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 지분을 한양 30%, 우빈 25%, 케이엔지스틸 24%, 파크엔 21%로 빚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은 SPC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을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빈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빈산업을 보유한 SPC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기존 30%와 더해 55%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SPC측은 “주주간의 민사 소송은 결과 여부를 떠나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PC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과 케이엔지스틸 쟁점 주식 49%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우빈에 남아있는 주식은 없다”며 “결국 이번 소송 승소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여수 탁성호 납북어부 5명 50여년만에 명예회복

1971년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던 여수 탁성호의 선원들이 5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

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탁성호 선원 5명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고향인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간첩으로 몰려 불려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1972년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